

## 공익을 위한 비평보도라도 위법적 요소가 있으면 안돼

London Artists Ltd. 등 v. Littler 등  
(19651 2Q. B. No.1884)

### 사실개요

피고가 1964년 5월 런던의 Her Majesty's Theatre 라는 극장에서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 이 라는 연극을 개막하였다. 그 극장은 피고의 형이 전무이사로 있는 원고 Associated Television Ltd.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를, 만약 매주의 매표수입금이 2주 연달아 3천 5백 파운드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극장주가 그 임대차기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같은 해 9월 「Robert and Elizabeth」 라는 다른 연극이 런던의 Lyric Theatre 라는 극장에서 개막되었다. 이 극장은 피고의 형이 전무이사로 있는 위 원고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의 형이 두 극장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의 형이 1965년 6월 18일 피고에게, 위 원고 회사에서 「Robert and Elizabeth」 를 Her Majesty's Theatre 로 옮길 수 있도록 피고가 자진하여 Lyric Theatre 극장으로 이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틀 후인 1965년 6월 22일 엄청나게 놀라운 통지를 받았다.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 의 중요한 배우 4명이 그들의 출연계약에 따라 연극을 그만두겠다는 4주 전의 문서에 의한 통지를 보낸 것이다. 모두들 같은 해 7월 24일자 저녁공연을 끝으로 그 연극을 그만둔다는 것으로, 그 배우들의 주선인인 원고 London Artists Ltd.사에 의하여 발송된 것이었다. 그 발송에 관하여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하였음이 외견상 명백하였다. 모든 주연급 배우들이 동시에 그만둔다는 일은 극장가에서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 을 완전히 폐막하게 하려는 일인 것 같았다. 피고는 그것이 「Robert and Elizabeth」 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의 연극을 Her Majesty's Theatre 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극장주가 배우들을 잡고서 그러한 통지를 내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하였고, 그들 간의 중재자는 원고 그레이드 (Lew Crade)씨와 원고 Grade Organization Ltd. 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는 음모일 것이라는 그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하여 그 다음날인 1965년 6월 23일 그 4명의 배우들 각자 앞으로 편지를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 편지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였다. 그 다음날 그 내용이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편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서 주선인을 통하여 1개월의 공식통보를 보내는 일에 가담하여 언뜻 보기에 의 상연을 종료시키려는 계획 같은 것에 참여한 데 대하여 대단히 상심하고 있다. 은 최대의 성공작 중 하나이고, 여전히 성황리에 상연되고 있음에도 극장의 이사진은 우리 연극을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들이 유효한 계약을 맺고 있고, 최고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떠나라는 요구에 불응하였다. ...Her Majesty's Theatre 와 런던의 꽤 많은 다른 극장들이 현재 그레이드 씨가 전무이사로서 있는 Associated Television 의 지배하에 있다. 그레이드 씨의 Associated Television Ltd.에 대한 근무계약은 Grade Organization Ltd.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Grade Organization Ltd.는 London Artists Ltd.를 소유하고 있고, 이 London Artists Ltd.가 우리들의 주연배우들을 관리하고 있다. London Artists Ltd.가 6월 22일 나에게 각 연예인이 그들의 출연을 꼭 같은 7월 24일자로 그만두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Her Majesty's Theatre 에서 성취한 1년 이상 상연의 기록을 깨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Associated Television Ltd.에 의하여, 위 통지기간이 만료하는 날 그 연극을 폐막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진 것이다. 위 연극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 배역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레이드 계의 주연배우 3명과 조연배우 1명을 일정한 날짜에 갑자기 뽑아 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Her Majesty's 에서 하는 우리의 연극은 별 수 없이 막을 내리고, 그 극장의 점유를 Associated Television Ltd.에 넘겨주게 되었다. 여러분은 모두 틀림없이 이러한 사연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극장의 역사상 이런 사례는 결코 없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 나는 이 일이 흥행산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태라고 생각하므로, 이 통고서를 배우조합, 극장경영자 회 및 전국 언론기관에 알리지 않을 수 없다.」

위 이른바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을 받은 배우자들을 돌봐주는 London Artists Ltd, 극장을 지배하고 있던 Associated Television Ltd., 그레이드 씨 및 중개역할을 한 Grade Organization Ltd.가 각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하는 4건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피고는 방어방법으로 그가 공표한 내용이 진보한 사실이라는 항변 (justification), 면책특권(privilege)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 공정한 비판(fair comment)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주장하였다. 그 음모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을 Her Majesty's Theatre 에서 상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그 부하들과 주선인을 협력하게 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배우들은 그들과 극장주

사이에 아무런 협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 배우들은 각자 개인사정으로 연극을 그만두려고 결심한 내력을 증언하였다.

음모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게 되자, 피고는 그의 공표내용이 진실하다는 변소와 함께 그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 1 심판사는 언론기관에 대한 공개는 면책특권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공표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사건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비판이라는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사건은 손해배상액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진정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지 아니한 것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또 피고가 그의 연극을 대중에게 더 널리 알림으로써 돈을 벌려고 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그는 진정으로 Her Majesty's Theatre 에서 그의 연극을 몰아내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였다.

배심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기각하고, 매우 신중한 금액의 배상을 인용하였다. London Artists Ltd.에 금 250 파운드, Grade Organization Ltd.에 금 500 파운드, Associated Television Ltd.에 금 500 파운드, 그리고 그레이드 씨에게 금 1 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각각 인용하였다. 이러한 금액의 선고를 듣고서 피고는, 만약 그가 공정한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 배심에 회부되었더라면, 완전히 빠져나갔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제 1 심판사가 공정한 비판이었다는 항변을 차단해버린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는 단지 공정한 비제에 관하여만 항소한 것이다. 피고는, 그가 한 얘기는, 공공의 이익, 즉 런던의 공중무대에서 성황리에 상연되고 있는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의 운명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선의로 한 공정한 비판이었지, 악의로 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관여법관 전원적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공정한 비판의 항변이 배심의 판단에 회부되려면, 그 논평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사실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되었다.

### 데닝(Denning) 판사의 판시요지

피고의 주장은, 그가 「한 얘기」 (the said words)를 마치 순전한 비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 얘기」는 사실에 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들 사실에 관한 진술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의 변호사 시절, 우리들은 피고가 사실과 비판 사이를 구별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큰 이점을 갖는 애매모호한 항변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곤 했었다: The Aga Khanv. Times Publishing Co. Ltd.

[1924] 1 K. B.675 참조. 그러나 그런 항변은, R.S.C. Ord. 82.r. 3(2)가 피고로 하여금 사실과 의견 사이를 구별하도록 강요하게 된 1949년 이후에는, 혐오 당하게 되었다. 그 애매모호한 항변에 갈음하여 피고는 이제 그가 「한 얘기는 공정한 비판이었다」 고만 주장한다. 그 얘기가 비판 뿐 아니라 사실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명백히 불완전한 항변이 된다. 그러나 그 항변은 그 비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함축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피고에게 그런 사실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Cunningham-Howie v. F. W: Dimpleby & Sons, Ltd. (1951) 1 K.B.360 참조. 그러한 함축된 뜻이 있는 것으로 그 주장을 읽는다면, 피고의 위 항변은 흠잡을 데가 없다.

공정 비판의 항변에 관하여는 세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제 1 점은, 그 비판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해진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제 1 심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아니한다. 책을 보아도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그 정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껏해야, 공익사항인지 여부의 판단은 배심이 아니라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기술과 함께, 그에 대한 일련의 예시 밖에 없다. 나는 그 개념을 협소한 테두리 안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다. 어떤 사항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는 그들과 남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정당한 흥미나 염려를 갖게 될 경우에는 언제나, 그 사항이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공익사항이라 그 좋은 예로는 South Helton Coal Co. v. North : Eastern News Association(1894) 1.0. B. 133 사건이 있다. 한 채탄회사가 광부들이 거주할 그 마을 주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택의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시되었다. 이셔(Esher)판사는, 「그 고용주들의 행위가 비판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사건에서는 공중이 정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중이 정당한 흥미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다. 그 주연급 배우들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광고지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제작자들도 역시 그것을 원한다. 그들은 극장이 만원 되는 것을 좋아한다. 연기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항은 사방에서 주목하고 있다. 3명의 주연급 배우와 1명의 조연배우가 동시에 은퇴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을 때 이리하여 성공적인 연극을 위협에 빠뜨릴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 논평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점은, 그 「음모」가 있다는 주장이,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입증해야 하는 사실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판인지의 문제이다. 공정한 것으로 되려면, 그 비평을 하는 사람이 그의 기초적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 기초적 사실이 그 문제의 요점과 본질을 이루고 있다: Cunningham - Howiev. Dimpleby[1951] 1K.B. 360, 364 참조. 그 기초적 사실은, 그러한 비판의 근거로 되거나, 그로부터 추론이 내려지는 사실로써, 비판이나 추론 그 자체와는 구별된다. 비평을 하는 사람은 그의 최초 비평문에서 모든 기초적 사실을 빠짐없이 적시할 필요 없다: Kemsley v. Foot (1952) A.C. 345 참조.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올바른 것으로 알아야 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입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는 참으로, 그 뒤의 사법절차에서 요구를 받게 되면, 그 기초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논평이나, 사실로부터 추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의 비평문 원본에서 그 자체로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기초적 사실을 발표한다면, 그는 그 사실이 진실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바로 그것이 공정한 비판이라는 변소(a plea of fair comment)와 진보한 사실이라는 변소(a Plea of justification) 사이의 전체적인 차이이다. 공정한 비판의 항변에 있어서는 단지 그 기초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만 입증하면 된다. 진실한 사실의 항변에 있어서는 나아가 그 논평과 추론이 옳다는 것까지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기초적 사실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A 항을 추가시켜 보완한 설명에서 피고는 매우 많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명확한 묘사는 전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의 사실을 종합하면, 그는 세가지 기초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다. 첫째로는 극장주가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을 Her Majesty's Theatre 로부터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그 주연배우들과 조연배우가 모두 같은 주선인을 통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양식의 통지를 발송해왔다는 사실이다. 셋째로는 그 극장주와 배우들 사이에, Grade Organization Ltd.를 통한,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의 상연을 끝장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중 앞의 두 가지 기초적 사실은 입증했으나, 세 번째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는 음모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그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 때문에 그가 공정한 비판의 항변에 관하여 궁지에 빠진다. 그는 기초사실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우회하였다. 그는 「음모」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단지 논평이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에 그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피고는 그의 답변서에서 「음모」를 사실에 대한 진술로 취급해 왔는데, 사건의 중반에서 하는 그러한 주장의 완전한 교환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피고는 그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에서 그것을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공술 하였다. 셋째로, 1965년 6월 23일자 편지의 전부를 공정하게 읽어 보면, 음모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대한 기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제 1 문단은 신중한 용어인 「같다」로 쓰여져 있고, 제 5 문단은 「바꾸어 말하면」으로 되어 있으나, 최후의 문단은 「공동의 노력」을 말하고 있다 그 편지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원고들 사이에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의 머리 위에 도끼를 내리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말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던칸(Duncan)씨 (피고 대리인)는 그러나 그 기술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비평인지의 여부는 배심의 판단에 맡겨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것이 논평으로 간주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그의 말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최근의 Jones v. Skelton [1963] 1W. L. R. 1362 사건에서 내린 Privy Council의 판결을 비롯한 많은 케이스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세가지 이유로, 그 「음모」에 대한 기술은 논평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기술은 그 자체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는 승소하려면 그 기술이 진실한 내용임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는 이에 실패하자, 그것을 가지고 공정한 비판이라는 항변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나의 견해가 잘못되고, 그것이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제 3의 논점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공정한 사람이 그와 같은 비판을 내릴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로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공정한 비판의 방어방법이 배심의 판단에 맡겨지려면, 반드시 최소한 그러한 비판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한 사람이 그런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런 의견을 갖게 될, 충분한 사실의 기초가 진실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으로 생각한다. 피고가 그의 의견이 옳았다거나 배심이 동의하는 의견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공정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의견을 정직하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한, 피고는 공정한 비판의 항변을 제기할 자격은 있다. 버클레이 (Buckley)판사가 Peter Walker & Son Ltd. v. Hodgson (1909) 1K.B. 239, 253 사건에서 한 판시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직하고 선의로 행동한 사실은 확실하다. 그는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의 상연을 종료시키려는 음모가 있다고 진실로 생각하였다. 이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는 공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너무 서둘러 그의 결론으로 건너 뛴 것이다. 피고는 것처럼 무턱대고 몰아붙이지는 말았어야 하고, 연극배우들에게 물어보았어야 했으며, 그의 형에게 물어보았거나, 그로부터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우리들은 그의 형이 6월 13일 바로 그 날짜로 「우리들은 종전과 같은 상태로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다. 너무나 서둘러 결론을 내림으로써 피고는 법을 저촉한 것이다. 그는 연극배우들뿐 아니라, Associated Television 그리고 주선인들인 London Artists Ltd., 그레이드 씨 및 Grade Organization Ltd.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제 1 심판사는, 이들 모두가 그 음모의 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사실의 기초 없이 비난을 퍼부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판단과 이것을 배심의 판단에 회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하였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렇게 된다. 「The Right Honorable Gentleman」의 운명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었다. 피고는 그의 비판이 정당하고 정직한 것인 한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완전한 권리가 있었다. 그는 언론을 통하여 공중에 대하여 그의 견해를 발표할 권리가 있었지만, 공정한 비판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순간의 느낌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았다. 그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방어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하여 그는 잘 하였다. 이 건 항소를 기각하고자 한다.